

■ 지방선거 핫코너

장휘국 "선거 사무실 개소"



장휘국 광주시교 육감 예비후보는 8 일 광주시 북구 신 안동에서 선거 사무 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용섭·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등 정치인과 교육계 원로, 전교조 해직교사 등이 참석했다. 장 예비후보는 "모든 학생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참교육을 실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학습준비를 구입비 지원"



장만채 전남도교 육감 예비후보는 8 일 "균등한 교육기 회를 제공하고 학부 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구입비를 전 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올해 도 교육청이 편 성한 35억원 외에 31억원 정도의 예산 만 추가하면 모든 초등학교에 학습 준 비물 구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완 중대련시 한인회장 면담



이병완 국민참여 당 광주시장 예비후 보는 8일 광주를 방 문한 이시연 중국 대련시 한인회장과 만나 광주시와의 민 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이 후보 는 면담을 통해 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성훈 "전남문화관광특구 추진"



임성훈 민주당 나 주시장 예비후보는 8일 "나주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유산 을 활용해 호남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나주의 '전남문화관광특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예비후 보는 "나주를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 세 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확대해 관광산 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아시아 공방촌 조성"



정재훈 민주당 광 주 남구청장 예비후 보는 8일 "남구 양 립동 일대를 아시아 문화교류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사직도서관~광 주천 주변에 아시아 공방촌을 조성해 아 시아 각국의 전시 복합 공간을 만들어 국제 예술인과 남구 주민 간 교류의 장 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진 "평생학습 계좌제 실시"



김화진 민주당 남 구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교육특구 남구 를 만들기 위해 평생 학습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평생 학습 계좌제를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남구청 웹 사이트를 통해 18세 이상의 구민들이 은행 통장과 같이 계좌를 개설 한 뒤 평생학습의 이력을 누적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3명 단일화



민주당 영암군수 경선에 참여하고 있 는 전동평·김재원· 김원배 예비후보는 그동안 두 번에 걸 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가장 지지율 이 높은 전동평 예비후보를 단일화 후보 로 합의 추대했다고 8일 밝혔다. 김재원 후보는 전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 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대책본부 장을 맡기로 했다.

국령애 "한 전총리 지지받아"



국령애 민주당 강 진군수 예비후보는 8일 "한명숙 전 국 무총리가 공개적으 로 지지와 격려의 의사를 전달해왔 다"고 밝혔다. 국 후 보는 이날 "한 전 총리는 여성의 정치참 여 확대와 평등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 정치인인 자신을 지지기로 결정했 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한명숙에 불법자금” 검찰 건설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체인 H사의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H사와 자회사인 K사,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는 한 전 총리가 공개적 사업 청탁과 함께 광영육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과정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데 이어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 과 과주에 있는 H사와 K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무제표와 회계장부 일체, 감사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과 법원,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민주 “명백한 흠집대기용” 별건 수사 중단 촉구

오늘 한 前 총리 1심 선고공판...여야 이목 집중

부도 상태인 H사의 채권단은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상당액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의혹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퇴임한 이후 제17대 국회의원(고양일산 갑) 신분일 때 지역구에 있는 H사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

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본사가 있는 H사는 2008년 3월26일 부도 처리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벌인 뒤 H사대표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아직 초기단계로 시간 이 오래 걸릴 공산이 큰데다 기존 뇌물수수 의혹과는 다른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만큼 9일 선고되는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이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명백한 흠집대기용 수사"라고 말했고, 한 전 총리측 조광희 변호사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9일 발표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재판 결과가 6.2지방선거의 풍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 (사)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는 8일 동구문화센터에서 '장애인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 및 선거공약 검증, 장애인 복지발전 제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軍 천안함 파편·잔해 위치 확인

'침몰 원인' 금속파편 나올수도...TOD 추가 영상 '이젠 없다'

군 당국은 천안함이 침몰로 발생한 각종 파편과 잔해의 위치를 확인해 인양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천안함이 침몰 과정에서 수 km를 떠내려왔 기 때문에 (잔해 등이) 중간 중간 떨어져 나 갔을 수 있다"며 "크게 함미와 함수 외에 작

은 조각들이 있을텐데 아마 위치를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천안함이 기뢰나 어뢰에 의해 침몰 한 것이라면 군이 잔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속 파편을 발견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군의 인양작업이 주목된다. 그러나 원 대변인은 "현재 함미와 함수 부

분 인양이 우선이기 때문에 (잔해 인양을) 크게 서두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당 잔해는 돌 로 갈라진 천안함이 떠내려가면서 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어뢰나 기뢰 등 에 의한 폭발이었다면 그에 대한 파편이 나 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 했다.

원 대변인은 천안함 폭발 당시의 영상을 포함한 또 다른 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더이상 없다"고 잘라말했다. 군은 지난 1일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한 뒤 추 가 영상이 없다고 했다가 7일 추가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함수 인양 금물살

체인 연결 4~5일내 마무리

3천 600t급 크레인선 도착

천안함 함체 인양작업이 '조금'을 맞아 금 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작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빠른 함수 부위의 인양이 먼저 이뤄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함미·함수 침몰 해역에서는 지난 4일부터 민간 인양업체들이 체인 연결을 위한 수중탐색에 돌입했지만 함체의 침몰 상태와 수중 상황 등이 달라 작업 진전 속도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함수 부위는 7일 야간까지 함체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체인 연결에 앞서 1인치 와이 어 2개를 연결했고 8일에는 이 와이어를 체 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7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조급에는 유속 이 느려지면서 최적의 작업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수중 작업에서 는 조류의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수 부위는 함체 한쪽이 약간 들려 있 는 상태여서 와이어 연결 등의 작업 진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현지 해군 관계 자들의 설명이다.

실종자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함미 부위에서는 지난 3일 고 남기훈 상사에 이어 7일 고 김택서 상사의 시신이 발견돼 함체 인양을 위한 수중탐색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함수 부위를 인양할 3천600t급 크레인선 '대우 3600호'는 8일 오후 9시, 이를 탑재 할 3천t급 바지선 '현대프린스 12001호'는 9일 오전 10시 백령도 근해에 도착할 예정 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scale of justice and text promoting educational services and credit systems.